

“승촌·죽산보 개방에 농업용수 부족” 하소연

나주천 취수장 수위 2.4m로 낮아지고 승촌보 상류 건천화

잇단 민원…市, 수자원공사에 수위 조절 등 대책 마련 요구

영산강 승촌보 및 죽산보 개방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 민원이 잇따르면서 나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에 공문을 보내 승촌·죽산보 개방과 관련, 수위 조절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시는 승촌보와 죽산보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평소 3.7m를 유지하던 나주천 취수장 수위가 2.4m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주시는 또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수위 변화와 가뭄 장기화 상황이 맞물리면서 농업용수 확보가 우려된다는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촌보 주변 미나리 재배 농민들 사이에서도 영산강 보 개방 이후 인근 지하수 양이 줄어들면서 미나리를 재배할 물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다.

나주시는 특히 승촌보 상류의 경우 지천에 물이 마르는 건천화 현상이 번지고 있는 점을 감안,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보 수위 조절을 비롯한 개방 속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수자원공사측에 요청했다.

나주시는 보 개방에 따른 영향·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농업인들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살펴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수자원공사측은 이와관련, 보 개방 이후 관련 효과·영향 등을 1년간 지속적으로



나주 영산강 승촌보 전경. 최근 보 개방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나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 주목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로 모니터링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부의 ‘4대강 6개 보 상시개방’ 방침에 따라 지난해 6

월 죽산보 수문을 개방한 이후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사랑상품권 애용하세요

市, 설 앞두고 5% 할인행사

나주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 판매에 팔을 걷어붙였다.

나주시는 2월 말까지 나주사랑상품권 5%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할인행사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와 상품권 인지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나주시 구상으로, 나주사랑 상품권은 관내 농협, 광주은행, 신한 등 금융기관에서 현금이나 직불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다.

나주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 음식점, 의류 판매점, 커피전문점 등 나주지역 1473개 가맹 점포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할인 행사를 통해 경기침체와 대형 유통업체 증가, 시민들의 소비 행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지역 기업·기관 등 41개소와 상품권 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유통 촉진에 나서는 등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나주시가 지난해 상품권 판매 촉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한 상품권도 16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7년 상품권 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판매액은 173억9000원에 이른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홍보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나주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이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강인규시장 주민과 대화…“한전공대 반드시 나주로”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 등

건의 사항 적극 반영 약속

강인규 나주시장이 한전공대(KEPCO Tech)와 관련, “반드시 나주에 입지, 혁신도시와 함께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빛가람동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실에서 열린 빛가람동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

다. 입지 선정을 놓고 ‘나주냐’, ‘광주냐’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입지 후보지 용역을 추진했다가 지역갈등 문제 등을 우려, 용역을 취소했던 전례 등을 감안하면 더이상 지역 핵심 현안을 두고볼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나주시는 애초 한전공대 입지후보지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키로 했다가 취소한 뒤 지난 7월 재차 대학 설립을 지원하는 용역으로 명칭을 변경,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날 대화 자리에서는 한전공대와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비롯, ▲불법 현수막 철거 단속 ▲보육시설 증설 ▲축사 허가 금지 및 약취관리 ▲LG화학나주공장 증설 반대 ▲불법주정차 단속 ▲호수공원 쉼터 조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주민과의 대화자리에 나온 건의·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주정차 금지구역, 가능지역으로 잘못 시공

LH, 혁신도시 도원빌딩 인근 혼잡 초래…6년만에 밝혀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잘못 시공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주·정차 차량들로 심각한 혼잡을 빚었고 주차난을 참다못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성 이후 6년여 만에 잘못 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LH는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 혁신도시 내 도원빌딩 인근 도로를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으로 시공한 사실과 관련, 황색 실선으로 처리해야할 것을 착오로 잘못 도색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면도로를 제외한 혁신도시 대부분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도원빌딩 인근 도로(길이 600m)가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으로 시공된 이유

를 이같이 답변했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이 일대는 해당 구간만 도로변 주·정차가 가능한데다, 지난해 9월 이후 나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까지 강화되면서 주·정차 차량들이 몰려 평소 극심

한 혼잡을 빚었다.

인근에 주차빌딩이 있었지만 도로변에 주·정차를 해놓는 경우가 훨씬 많아 무질서한 상황이 빚어지면서 참다못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나주시는 관련 민원을 접수받은 뒤 관련 시설을 이관받은 지난 2011년 이후 경찰서 심의자료 등 관련 서류를 찾다가 해당 구간을 조성했던 LH에 확인을 요청했고 LH는 최근 이같은 잘못을 인정, 나주시에 변경을 요청했다.

LH측은 교통영향평가상 노외주차장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구간은 백색 실선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어 ‘시공 과정 중 착오’라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LH측이 착오를 인정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 조속하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학사 입사생 40명 22~26일 모집



나주학사 전경

나주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40명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나주시청 교육체육과(061-339-4512)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 내발산동에 위치한 나주학사는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전국 8개 자치단체에서 건축비를 부담해 건립한

공공기숙사로, 나주시는 20실을 확보해 매년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공고일(8일) 기준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관내 2년 이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인 경우, 공고일 현재)등록되어 있고 학생이 서울·인천·경기도 소재 대학 이상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통 차이나이스 레스토랑 **홍메이**가 오픈하였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상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정통중화요리 | 가족모임 · 비즈니스모임 · 단체석완비

紅梅 홍메이

- 각종 행사를 위한 품격있는 장소 -

화순 엘리체 골프장 주방장이 직접 요리하는 품격있는 중국집!

예약문의. 062) 571-5531

광주시 북구 설죽로 419(삼각동 507-5)
일곡 엘리체 프라이م APT 상가 115동 2F